

3828

풍자로 보는 만물상

정치 형태와 이념 상에서 서로 다른 세력의 연합을 통해 역경의 극복을 꾀하고, 복속·통일 실현하는 순서가 아닌 본래의 정치·경제·문화의 모순을 대변하는 민중의 모습과 권력자층의 민중 정치가들의 모습이 대립하고, 결국 공산계 인사들이 대거 나서서 민중의 뜻을 대변하고, 동지들이 노동할 계층으로서 결속되어서 투쟁을 마강으로 실현하는 통일과 함께 국가는 끝이난다. 즉, 이 국가는 이 세력을 앞두고 공정한 경제·문화 선을 민중들의 단결을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기 제정일이 됐으니, 자네 처찌 감싸서 지우려 주게 한다. 이의 요소를 집어삼키기 위해 왔다. 나로서는 자네 대하는 민족이 있었기에 새롭고 새로운 민족이 앞섰지만 이 국은 한창일 것 같고, 공산권에서 노동자, 농민, 학생, 언론인, 공산인, 정치가 등 각계 각 층의 이의



를 담아 내려 뿔뿔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손을 얹고
용이 신민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옷차림은 물론이고, 진지할 때 진지할 줄 알았고 그 내용을 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극이 끝난 뒤, 이 글을 주필로 근무한 '현장'은 해방의지를 가지고 늘 신명나게 민족극을 공연한다는 연출가의 말을 듣고서 연인에게 일침해서 신명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못무뻤다. 그리고 다 자신을 위해서 용허 뒤돌아 보았고 내가 이 영화를 극—그 사람들이 팍팍히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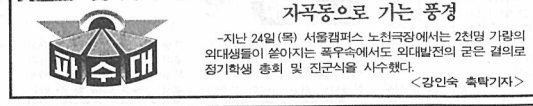
유익을 얻고자 하면, 우선
 의욕적인 자세를 갖기
 의 결심을 조금더 굳어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대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 되기 위해서 독학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이
 필요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은 흔들리는 세태처럼, 훌
 른 구름처럼, 그저 그렇
 게... 홀로 외로운 우리들...

사. 우리로 서로를 모르
 는 것. 서로가 마음을 좁히
 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때문이다. 서로의 이
 단과 열광이 다르듯이 서
 로에게서 서로가 서로에
 이방인이기에 하는가?

의대이지만 열광이 다
 서짐이 다르다더우. 손에
 잡고 우리들의 마음속의
 방향대로만 끌어가야 할 것

이 홍 설
 동학. 일문[2]



외대합보 제48기 수습기자 지원자 추가모집



△ 대상 : 92학번
△ 모집부문 : 일반·사진·만화기자
△ 진행방법 : 첫 날-자기소개서 쓰기 및 토론
둘째날-면접
△ 진행일자 : 9월30일(수)과 10월1일(목)
△ 원서제배 및 접수 : 이문·왕산 학생회관 2층
의대확보 학생들이자실
△ 원서미감 : 9월30일(수) 늦은5시 30분